

大學生은 심리학을 얼마나 정확하게 理解하고 있는가?*

李 勳 求

延世大學校 心理學科

머 리 말

심리학은 인간자신에 관한 學問이므로 심리학에 관한 올바른 理解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반대로 人間에 대한 誤解나 迷信은 우리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주는 바, 우리 심리학자가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일반인의 심리학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增進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國民이나 社會 各 集團의 심리학에 대한 理解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심리학적 지식이 어느 水準에 와 있는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인간에 관한 어떤 誤解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筆者가 현재 알고 있는 한 國內外로 國民의 심리학적 지식수준 그 자체만을 알기 위해 遂行된 연구는 없는 것 같다. 간혹 다른 종류의 목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우리 심리학자의 關心을 끄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바, 그러한 연구중의 하나가 迷信에 관한 것이다. 즉, 이들 迷信研究에서 다른 迷信에는 人間에 관한 誤解나 迷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李勳求와 그의 동료들(1980)은 全國적으로 流行하고 있는 37가지의 迷信을 選定해서 各種 社會集團을 대상으로 이들의 迷信에 대

* 이 研究의 자료처리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 이 희수가 맡아 주었다.

한 肯定과 行爲를 조사한 바 있다(調査對象者는 全國을 代表하는 婦人集團 1,248과 任意로 표집한 成人男子 612名, 그리고 初·中·高·大學生 2,649名, 總 5,409名이었다).

이 調査에서는 迷信을 그 내용에 따라 몇가지 類型別로 分類했는데, 그것은 ①運 또는 運命에 관한 것, ②觀想 및 手相과 같은 占에 관한 것, ③風水地理, ④浪說(misbelief), 그리고 ⑤似而非心理學(예컨대, 體質的 性格等)이다. 이 중 제일 마지막번째의 似而非心理學이 일반인이 지닌 인간에 대한 誤解나 迷信으로 우리 心理學者의 關心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李勳求와 그의 동료들(1980)의 研究에 포함된 소위 “似而非心理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흔히 體質的 性格 및 遺傳論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그 몇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혈액형과 性格과는 관계가 있다, ②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사람은 성깔이 있다, ③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다, ④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⑤공부를 많이 하면 미친다.

李勳求와 그의 동료들이 한 연구의 結果를 보면 國民全體로 볼 때, 이러한 似而非心理學을 믿는 率이 50% 以上이나 達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사회의 엘리트로 간주되고 있는 大學生集團에 있어서도 이 似而非心理學에 대한 긍정률이 높았다는 點이다. 이 연구의 各 問項別로 男女大學生들의 긍정률을 몇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혈액형과 성격과는 관계가 있다”(男 99.3%, 女 68.6%), “공부를 많이 하면 미친다”(男 43.2%, 女 36.9%),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사람은 성깔이 있다”(男 56.1%, 女 33.0%),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다”(男 41.9%, 女 33.0%),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男 63.0%, 女 51.7%). 이 研究에서 大學生集團의 似而非心理學에 관한 믿음은 전체적으로 볼 때, 一般主婦나 成人男子集團보다 낮으나 그러나 위의 結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긍정률이 꽤 높은 편이다. 즉, 各 問項에 따라 그 긍정률의 差異가 있으나 範圍가 33.0%부터 99.3%에 이르는 高率이다. 특히 우리의 興味를 끄는 것은 女大生에 비해 男大生의 似而非心理學에 대한 긍정률이 높다는 점이다.

外國의 迷信에 關한 研究中 似而非心理學에 관한 調査內容과 그 結果를 살펴보면 우선 Levitt(1952)는 미국 대학생을 상대로 1925

년과 1950년의 두 차례에 걸쳐 似而非心理學에 관한 대학생들의 믿음에 어떤 變化가 있어 왔는가를 調査했다. 骨相學 또는 觀相學을 믿는 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바, 앞에 제시된 숫자는 1925년도 결과(피조사자 수는 남 219명, 여 184명)이고 다음 제시한 것은 1950년도 결과이다(피조사자 수는 남 110명); ① 사람의 性格은 머리의 독특한 부위의 크기와 배열을 보고 알 수 있다(40.0%, 2.7%), ② 파란 또는 검은 눈을 가진 사람에 비해 녹색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4.0%, 0.9%), ③ 턱이 내모난 사람은 의지력이 있다(34.0%, 0.9%), ④ 얼굴 생김생김을 보면 지능이 높은가를 알아 낼 수가 있다(50.0%, 3.6%), ⑤ 앞이마가 튀어 나온 사람은 지능이 우수하다(39.0%, 1.8%).

한편, 知能 또는 정신상태에 관한 迷信 또는 誤解하는 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女性은 男性보다 知能이 劣等하다(16.0%, 5.5%), ② 저명한 사람은 어렸을 때에는 정신지체아였었다(36.0%, 12.0%), ③ 천재는 신체가 약하고 內省的이다(32.0%, 3.6%), ④ 산술공부는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산술공부는 우리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76.0%, 34.6%).

Levitt (1952)의 연구에서는 모두 27個의 迷信을 조사했는 바, 그 중에서 1925년의 경우를 보면 한 개만 빼놓고는 그 긍정률이 25%~4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같은 迷信問項을 1950年 再 調査했을 때 이 긍정률이 크게 줄어들었는 바, 즉 한 迷信問項만 빼놓고는 2%~12%로 감소되었다. 즉 社會의 變化, 心理學에 대한 理解가 增加함에 따라서 迷信信奉率은 크게 저하되었다.

李勳求와 그의 동료들(1980)의 研究結果와 Levitt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즉, 兩 研究間에서 서로 같은 內容의 迷信을 포함시킨 것이 있으나 그 調査內容이 完全히 一致하지 않아서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을 無視하고 구태여 두 연구를 한번 比較해 보자면, 迷信에 대한 大學生들의 긍정률은 韓國大學生들에게서 굉장히 높다. 즉 이 率은 1925년의 美國大學生의 긍정률보다도 더 높다. 韓國과 美國大學生間에 왜 이러한 높은 差異가 나는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 解明할 道理가 없다. 애써 가정해 본다면 우리 大學生은 美國大學生에 비해 心理

學에 대한 理解가 不足하고, 그리고 또 우리 社會가 전반적으로 迷信을 더 믿는 풍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 외의 外國의 迷信研究를 살펴보면, Jahoda (1970)는 “가나” 大學生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迷信을 믿는 정도와 그들의 教育水準 및 內外統制傾向性, 知能, 場依存性, 近代的 態度 等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는 많은 “가나” 大學生들이 여러 종류의 迷信을 믿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教育程度나 과학교육을 받은 경험과 개인의 迷信을 믿는 것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음을 報告했다. Jahoda 가 연구에 포함시킨 여러가지 心理的인 變因中 모든 연령집단에서 迷信과 意義있는 관계를 보인 것은 內外統制傾向性 하나 뿐으로서 內的 統制傾向性을 가진 사람(自己의 運命은 자기가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態度)이 外的 統制傾向性을 가진 사람보다(사람에게는 運이 있다고 믿는 態度) 迷信을 덜 信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迷信을 믿는 정도와 개인의 年令, 教育水準, 그리고 知能과는 無關한 것으로 밝혀졌다(Levitt, 1952, Garrett and Fisher, 1926). 한편, Jahoda (1970)의 연구에서 大學生들의 迷信을 믿는 정도와 父母의 職業과의 相關을 내어 본 결과 두 變因間的 意味있는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大學生들의 迷信, 특히 心理學的 事實에 관한 誤解 등을 알아 보는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韓國大學生들을 代表할 수 있는 集團을 標集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筆者가 가르치고 있는 教養心理學을 수강하는 學生에 局限했다. 따라서 이 研究結果를 一般化시킬 수는 없다.

이 研究에서는 연세대학교의 一部 學生들의 迷信, 그리고 심리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知識을 알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教養心理學에서 어떤 내용을 특히 강조해서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관해 示唆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일 많은 學生들이 人間에 대한 많은 誤解 또는 迷信을 지니고 있다면 教養心理學을 담당하는 心理學者가 이를 교정해야 할 임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

사람과 관련된 迷信 또는 낭설 등을 나타내는 것 25個를 뽑아 이를 서술문으로 表示하여 學生들에게 인쇄하여 나누어 주고 이들에게 각 서술문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중의 하나로 판단하게 했다. 이들 迷信 또는 낭설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 韓國인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뽑았으며 이 25개의 迷信 또는 낭설의 內容이 무엇이나에 따라 대충 여섯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迷信 또는 낭설은 그것이 心理學의 어떤 主題에 속하느냐가 애매한 것이 많고 이를 分類하는데 異論이 분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分類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류하는데 그렇게 神經을 쓰지는 않았다).

- 1) 性格 및 適性에 關한 것 6個(예컨대, “혈액형과 성격과는 관계가 있다” 등)
- 2) 知能에 關한 것 6個(예컨대, “지능지체는 정신병이다” 등)
- 3) 學習에 關한 것 2個(예컨대, “더디게 학습하는 사람은 빨리 학습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억해 둔다” 등)
- 4) 人間의 本性에 關한 것 2個(예컨대, “인간은 本能의 動物이다” 등)
- 5) 꿈에 關한 것 2個(예컨대, “꿈은 들어 맞는다” 등)
- 6) 정신병에 關한 것 2個
- 7) 기타 5個

被調査者는 연세대학교 全校生을 위한 教養心理學講義 A班을 수강하는 學生들이었으며 이들의 學年別 分布를 보면 1학년 57名, 2학년 23名, 3학년 56名, 그리고 4학년 51名이었고 남녀는 거의 同數였다. 이들의 學科別 分布를 보면 文科大學, 社會科學大學, 商經大學, 음악대학, 神科大, 教育科學大 等 연세대 서울 캠퍼스의 各大學 各學科生이 고루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이들 標集이 연세대 서울캠퍼스 學生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被調査者는 調査者가 作成해 놓은 25個의 서술문에 應答한 후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에 관한 어떤 지식을 빈

칸에 적어 넣고 그 지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역시 “사실이다”, “아니다”, 그리고 “모르겠다”의 세가지 중 하나로 表記하게 했다. 被調査者의 이 問項作成은 그 數를 制限하지 않았다. 이 問項을 作成하게 한 이유는 大學生들이 갖고 있는 人間에 대한 기타의 迷信, 浪說과 一般知識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

研究 結果

이 연구에서 調査한 結果를 그 心理學的 主題別로 分類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各 問項에 대한 應答을 被調査者의 學年別로 集計해 본 結果 그 차이는 크지가 않았다. 이 學年別 分類를 해 본 이유는 혹시 高學年인 경우는 心理學의 다른 各論(예컨대, 發達心理學 또는 性格心理學)을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人間에 대한 迷信이나 浪說을 적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學年差가 없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도 高學年에 心理學의 各論을 듣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1. 性格 및 適性

이 主題속에 묶을 수 있는 問項은 여섯 가지가 있었다. 表 1에 는 여섯 가지 性格 및 適性問題에 관한 被調査者의 應答率(%)이 제시되어 있다.

〈表 1〉 大學生의 “性格 및 適性”에 관한 應答率(%)

問 項	사실 이다	아니다	모르 겠다	全體 (事例數)
① 혈액형과 성격과는 관계가 있다.	62.5	27.3	10.2	187
② 손이 긴 사람은 예술가의 소질이 있다.	31.6	55.0	13.4	187
③ 소질은 타고 난다.	72.2	22.5	5.3	187
④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10.2	85.6	4.2	187
⑤ 남·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가지 성격적인 차이가 난다.	58.8	35.8	5.4	187
⑥ 서로 성격이 다른 부부가 행복하다.	33.7	34.8	31.5	187

여섯 가지 問項中 4번 問項 즉, “性格은 변하지 않는다”에서 “아니다”의 應答率이 85.6%로 나타나서 被調査者들이 비교적 “性格의 非一慣性”을 잘 아는, 즉 옳은 知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외의 나머지 다섯 問項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說明하면 問項①의 “혈액형과 性格과는 관계가 있다”를 “사실이다”라고 應答한 사람이 무려 62.5%에 이르나 이것은 현재 심리학에서는 無關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비단 大學生들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 “혈액형-성격”간의 상관을 굳게 믿는 경향이 있어서 會社에서 社員採用時 혈액형을 지원서에 적게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다. ②번 問項은 體質性格論에 속하는 문제이나 이것 역시 浪說이다. 이 問項에 찬성한 사람은 31.6%이고 반대한 사람은 55.0%로서 被調査者의 과반수가 옳은 判斷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信奉하거나 이를 “모르겠다”라고 應答한 수가 꽤 많은 편이다(이 兩應答을 합하면 45%).

③번 問項은 “素質은 타고 난다”이다. 이 問項에 대한 正答에 關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知能의 경우 遺傳의 영향이 있음을 否認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心理學者들은 여러 가지 適性, 興味, 態度 등은 遺傳이기 보다 學習의 結果라고 判斷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知能의 경우도 이것이 遺傳의 영향을 받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養育環境이 이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하튼 ③번 問項에 대해서는 被調査者의 대부분이 잘못된 信念을 갖고 있다.

⑤번 問項을 보면 男·女間의 性格差가 先天的인 것으로 誤認하는 사람이 58.8%나 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分명한 浪說로 밝혀졌다. 즉 女性心理學 分野의 心理學者들이 다년간 연구한 결과 男·女間에는 性格差가 없어 이것이 偏見임이 밝혀졌다. 이 調査結果는 韓國的인 “남성우월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⑥번 問項은 소위 社會心理學에서 말하는 “반대적 매력”(opposite attract)에 관한 것이다. 일반인들은 夫婦나 愛人の 性格이 서로 꼭 같으면 不和가 많고, 성격이 서로 反對되거나 補充的이어야

화목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한 쪽이 外向的 性格이면 다른 쪽은 內向的 性格 等……. 그러나 社會心理學者들이 多年間 研究해 본 結果는 夫婦의 性格은 서로 反對되기보다 서로 一致하는 것이 더 有益하다.

“性格 및 適性”에 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被調査者들은 “性格의 不變性” 問題를 제외하고서는 이 主題에 관해 잘못된 또는 非科學的인 信念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심한 誤解는 “素質의 遺傳”에 관한 것에서 나타났다.

2. 知 能

“知能”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는 問項에는 여섯개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結果가 表 2에 提示되어 있다.

〈表 2〉 大學生의 “知能”에 관한 應答率(%)

問 項	사실 이다		아니다		모르 겠다		全體 (事例數)
	12.8	59.9	27.3	187			
① 지능저체는 정신병이다.	12.8	59.9	27.3	187			
② 지능은 유전한다.	66.8	26.7	6.5	187			
③ 지능은 노령화에 따라 퇴보한다.	64.2	28.3	7.5	187			
④ 지능이 높으면 출세한다.	16.6	72.7	10.7	187			
⑤ 머리가 큰 사람은 지능이 높다.	14.4	74.3	11.3	187			
⑥ 천재는 신체가 약하고 내성적이다.	25.7	63.6	10.7	187			

知能과 관련된 代表的인 浪說은 ⑤번, 즉 “머리가 큰 사람은 지능이 높다”라는 것과 ⑥번의 “천재는 신체가 약하고 내성적이다”라는 것일 것이다. “머리 크기와 지능간의 상관”은 일반인이 뇌의 무게가 크면 지능도 높을 것이라는 단순적 思考로부터 나온 것이다.

1900年代에 英國의 겔톤이 신체적 특징과 知能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 바, “머리 크기와 知能간의 關係”는 浪說임이 立證되었고 그 후 한 연구에서 아인슈타인의 뇌무게도 정상인과 같음이 밝혀졌다. 被調査者의 應答率을 보면 이 浪說을 믿지 않는 사람이 74.3%나 되어 이들의 대부분이 옳은 知識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⑥번 問項은 ⑤번과 비슷한 內容으로 “知能과 身體的 類型”간

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천재는 신체가 弱하고 요절한다”는 믿음을 간직해 왔다. 그러나 美國心理學者들이 실제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아동은 보통 지능의 아동보다 오히려 더 신체가 튼튼함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허위인 셈이다. 大學生의 ⑥번에 대한 反應을 보면 “아니다”라고 대답한 率이 제일 높아서 “63.6%”이다. 즉 대다수가 천재와 體格間의 관계를 否定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⑥번에 대한 “否定率”은 ⑤번 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즉 아직 “천재-병약” 관계를 믿는 大學生은 적지 않은 率이다(“사실이다”와 “모르겠다”의 率을 합치면 “36.4%”나 된다).

“知能과 출세”와의 관계를 살핀 ④번 문항에 관한 결과를 보면 72.7%가 이 두 變因間의 관계는 서로 無關하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옳은 판단인 바, 사람이 성공하려면 知能 못지 않게 創意性, 成就意欲, 그리고 지구력이 필요하다.

③번 문항의 경우 어떤 대답이 正答인가에 관해서는 心理學者間에 異見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知能을 무엇으로 定義하느냐에 따라 正答이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이 되면 短期記憶力은 떨어지나 分析力, 綜合力, 理解力은 감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心理學者들은 知能은 短期記憶 뿐 아니라, 위에 적은 要因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見地에서 살펴보면 “知能의 老齡化”에 대한 正答은 “아니다”쪽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調查結果를 보면 “사실이다”라고 應答한 率이 “64.2%”나 달한다. 被調查者들은 知能이 老齡化된다고 많이 誤解하고 있다.

②번 問項도 正答에 異見이 提起될 수 있는 문제이다. 知能이 遺傳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父母의 知能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그들 子女의 知能도 높게 발휘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子女들의 知能의 潛在力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 실제 발휘되느냐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兒童의 영양 상태, 學習經驗, 父母의 養育方法에 크게 달려있다. 또 이러한 環境的 要因이 知能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變化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난 知能을 보면 오히려 遺傳보다도 環境의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②번 問項의 正答은 그것이 知能을 知能의

潛在力에 局限시키느냐 아니면 知能의 실제적 발휘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달라지는 바, 오늘날 心理學者들은 個人的 知能을 말할 때 後者の 定義를 더욱 支持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②번 問項의 正答은 “아니다”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大學生의 “66.8%”가 이를 “사실이다”라고 대답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능지체는 精神病이 아니므로 ①번 問項의 正答은 “아니다”이다. 被調査者들이 “아니다”에 應答한 率을 보면 “59.9%”이다. 즉 과반수의 大學生이 옳은 知識을 갖고 있으나 아직 적지 않은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 역시 잘못 생각하고 있다.

知能에 관한 이번 結果를 綜合해 보면 “知能과 身體의 類型 間의 相關”을 다룬 問項에서는 비교적 精確한 知識을 갖고 있으나 “知能의 老令化”, “知能의 遺傳性”에 관해서는 大學生의 大多數가 잘못 理解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學 習

학습에 관한 문항에는 두 가지가 있었고 그에 관한 結果는 表 3에 나와 있다.

〈表 3〉 大學生의 “學習”에 관한 應答率(%)

問 項	應答率(%)			全體 (事例數)
	사실 이다	아니다	모르 겠다	
① 더디게 학습하는 사람은 빨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억해 둔다.	16.0	69.5	14.5	187
② 반복 연습하면 기술이 향상된다.	98.4	1.6	0	187

①번 문항, 즉 학습속도와 記憶間의 관계는 서로 無關하다는 것이 正答이다. 옳게 答한 率은 69.5%에 달해서 大部分이 맞았으나 그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注視해야 한다(즉 “사실이다”와 “모르겠다”의 率을 합치면 30.5%나 달한다).

“반복 연습하면 기술이 향상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들어맞는 말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예컨대, 단순한 육체

적 운동기술은 단순 반복하면 그 기술이 향상되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단순반복이 그 운동에 대한 認知的 把握이 없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點이다. 예컨대, 수영을 배우는 것도 몸동작에 대한 知覺的 또는 認知的 理解가 병행되지 않으면 반복운동한다고 해서 그 技術이 向上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번 問項에 대한 정확한 答은 “그럴 수도 있고 안그럴 수도 있다.”이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被調査者의 “98.4%”가 ②번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對答한 것은 너무 편파된 應答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人間의 本性

人間의 本性이 어떤가에 관한 것은 心理學者 뿐 아니라, 일반인의 큰 관심사이다. 이에 關한 문항은 두 개가 있었고 그 結果는 表 4에 提示했다.

〈表 4〉 大學生의 “人間本性”에 관한 應答率(%)

問 項	應答率(%)			全體 (事例數)
	사실이다	아니다	모르겠다	
① 인간은 本能의 동물이다.	64.7	31.6	3.7	187
② 인간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48.7	42.8	8.5	187

과거 맥두갈 같은 심리학자는 인간이 여러가지의 本能 예컨대, 권력, 복종, 유희 등에 대한 本能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오늘날 이는 否定되고 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生理的 欲求만을 人間의 本能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은 인간의 여러가지 폭넓은 행동이 모두 本能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는 바, 大學生의 64.7%가 인간을 本能의 동물로 간주했다. 인간이 本能의 영향을 받는 것은 극히 一部이고 오히려 인간의 더 많은 행동이 學習의 結果임을 大學生이 모르고 있다.

②번 問項은 人間이 어떤 意志, 自律을 갖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外部刺戟 또는 學習經驗에 따라 被動的으로 행동하는가를 따지는 문제이다. 어떤 것이 正답이냐는 心理學者間에서도 異見이 엇갈리고

있는 바, 대체로 人本主義 心理學者들은 인간의 自律的 存在를, 반면에 行動主義 心理學者들은 人間의 非自律性을 主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쟁이 되는 이러한 問題를 이번에 調査한 이유는 筆者의 생각으로는 一般人들이 人間의 自律性은 많이 강조되되 非自律性에 關해서는 無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大學生들의 見解는 “사실이다”와 “아니다”가 거의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大學生들이 평소에 인간의 非自律性을 많이 관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5. 꿈

우리 社會에서는 유독 꿈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태몽을 비롯해서 꿈의 豫言을 많이 믿는 경향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꿈에 관해서 두 가지를 조사했다.

〈表 5〉 大學生의 “꿈”에 관한 應答率(%)

問	項	사실이다		모르겠다	全體(事例數)
		이다	아니다		
① 꿈은 들어 맞는다.		25.1	56.1	18.8	187
② 꿈이 많으면 숙면을 못한다.		59.4	32.6	8.0	187

“꿈이 들어 맞는다”고 믿는 大學生은 25.1%였고 이를 믿지 않는 率은 56.1%로서 大學生의 과반수 이상이 꿈의 豫言力을 不信하고 있었으나 이를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것은 꿈을 믿는 우리의 迷信風調를 反映하는 것이다.

②번 문항, 즉 “꿈과 숙면”과의 관계 문제는 現代心理學에서는 無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꿈은 잠을 돕는 機能을 갖고 있어서 꿈을 꾸어야 잠을 오래 잘 수 있다. 우리는 하루 저녁에 십여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를 記憶하고 못하고, 이는 그때 잠을 자는 사람의 肉體的인 피곤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꿈을 꾸고 안꾸고가 숙면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를 보면 大學生의 59.4%가 “꿈이 많으면 숙면을 못한다”고 믿고 있다.

6. 精 神 病

정신병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를 조사했다. 첫째 문제는 정신병의 유전에 관한 것이다(表 6).

〈表 6〉 大學生의 “精神病問題”에 관한 應答率(%)

問	項	사실 이다	아니다	모르 겠다	全體 (事例數)
①	정신병은 유전한다.	39.0	43.3	17.7	187
②	의치증은 사랑의 표시이다.	13.4	75.4	11.2	187

정신병의 遺傳에 관한 문제는 아직 心理學에서 해결되지 않은 難題中的 하나이다. 정신병의 유전을 主張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예컨대, 정신병 환자의 父系나 母系를 추적해 보면 역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친척이 있음이 발견되고, 일란성 쌍둥이 하나가 정신병에 걸릴 경우 나머지 하나도 정신병에 걸릴 확률은 확실히 이란성 쌍둥이 보다 높다. 그러나 정신병환자를 父母로 가진 자녀가 반드시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신병의 遺傳說을 否認하는 증거이다. 現代의 心理學者들은 이 두 主張이 다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고 문항 ①의 결과를 살펴보면 大學生은 遺傳說을 否認하는 율이 약간 많지만 이를 긍정하는 率과 큰 차이가 없다(43.3% 對 39.0%).

의치증이나 의부증 역시 정신적 장애의 하나인 바, 일반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별히 이 문항을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의치증이 정신적 장애인가를 직접 묻기보다는 “의치증이 사랑의 표시인가”로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는 이를 반대하는 率이 75.4%로 나왔다. 그러나 이 결과가 大學生이 의치증을 정신적 장애로 보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7. 기타의 문제들

이번 조사에는 지금까지 言及한 내용에 속하지 않은 다섯개의 문

항이 있었는 바, 이에 관한 調査結果는 表 7에 정리되어 있다.

①번 문항은 人間の 知覺에 관한 것으로 인간이 착각을 하는가를 물어 본 것이다. 知覺心理學의 연구결과는 인간의 다양한 착각 사실로 메꾸어져 있는 바, 이것은 인간이 착각을 많이 함을 力說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맞게 대답한 大學生의 率이 84.5%이다. 즉 많은 大學生이 인간의 知覺特徵을 잘 알고 있었다.

〈表 7〉 大學生의 기타의 문제에 관한 應答率(%)

問 項	사실이다			全體 (事例數)
	아니다	모르겠다		
① 눈으로 보는 것의 착각은 없다— 우리가 본 것은 사실이다.	8.0	84.5	7.5	187
② 딸은 아버지를, 아들은 어머니를 좋아한다.	58.3	30.5	11.2	187
③ 벌을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56.1	36.4	7.5	187
④ 학교때 성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래 성공을 예측할 수 없다.	81.3	12.3	6.4	187
⑤ 출신도에 따라 성격에 차이가 있다.	61.5	26.7	11.8	187

②번 문항은 子女가 異性의 父母를 사랑하는가의 문제를 살핀 것이다. 프로이드가 에디프스콤플렉스를 主張한 뜻으로 한때는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는 심리학자가 많았고 일반인들은 거의 定說처럼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美國서 실제 조사한 결과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이번의 결과를 보면 大學生의 58.3%가 이를 “事實이다”라고 反應했다. 즉, 이들은 대부분이 浪說을 사실로 믿고 있다.

③번 문항은 부모의 訓育方法에 관한 것이다. 行動主義가 판을 치던 1900년대 초에는 엄격한 양육방법이 좋다는 學說이 有力했다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등장함에 따라 教育方法은 아동의 欲求를 억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 허용적인 教育方法이 권장되어 왔다. 그동안 다양한 육아방법의 효과에 관해 많은 研究를 해본 結果, 자식을 사랑하고 억압하지 않는 方式을 취하되 야단칠 것은 야단쳐야 하는 육아방법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식에게 벌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 벌은 一時的

效果만을 갖고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二重의 否定效果를 가진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56.1%의 大學生이 “별의 效果”를 긍정하는 대답을 했다. 부모가 아닌 하나의 자식인 大學生이 오히려 이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학교의 성적이 장래 성공과 관련이 없다”를 물은 ④번 문항의 正答은 “관련이 있다”이다. 美國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名門大學出身과 학교에서 우수한 成績을 얻은 학생이 직장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높은 地位로 올라갔다. 오늘날 大企業에서 名門大學出身을 우대하는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면 大學生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성적과 장래 성공”은 서로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이 81.3%나 달한다.

마지막 ⑤번째 문항은 社會心理學에서 소위 말하는 偏見에 관한 것이다. 어느 나라건 出身地域에 따른 性格의 差에 대한 偏見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는 例外가 아니다. 즉, 서울사람은 성격이 어떻느니 경상도 사람은 어떻다는 식의 偏見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역시 나타나서 ⑤번 문항을 긍정한 率이 61.5%에 달한다. 地域感情을 해소하고 國民和合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우리의 偏見, 즉 出身道와 性格을 믿는 迷信은 타파되어야 마땅하다.

結 論 및 提 言

心理學을 잘못 理解하는 것은 커다란 副作用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社會集團에 대한 우리의 偏見은 不和와 對立을 造成하게 된다. 또한 지능지체가 정신병이라고 믿는 社長은 지능지체아를 고용하지 않는 差別的 고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심리학에 대한 올바른 理解는 한 나라의 發展에 크게 기여한다.

外國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國民의 心理學에 대한 理解가 不足하고 이를 改善시키는 것은 心理學者 모두의 중요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國民의 心理學에 대한 理解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여러가

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大學의 教養心理學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大學生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이므로 이들에게 心理學을 잘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리학이 國民에게 올바르게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의 教養心理學에서 무엇을 重點的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는 우리 심리학자들 모두가 研究해야 할 중요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이번 調查結果는 연세대학교라는 限定된 集團을, 그것도 任意的 標集에 의해 大學生을 조사했기 때문에 調查結果의 一般化에 문제가 있으나 그런대로 현재 大學生이 心理學에 대한 어떤 理解를 하고 있는가를 밝혀주어 心理學者가 앞으로 이들에게 무엇을 더 強調해서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調查校果를 보면 大學生이 觀相學 또는 體質性格論(예컨대, 혈액형과 性格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아직 많이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Levitt(1952)가 美國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25년에는 美國大學生이 觀相學, 骨相學, 그리고 體質의 性格論에 대한 迷信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후 25년이 지난 후에 이를 再調查해 본 결과는 이러한 迷信이 거의 타파되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 사이에 國民에게 心理學的 知識이 급속도로 전파된데 기인한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大學生의 心理學에 관한 知識은 대충 Levitt가 美國서 調查한 1925년 수준과 비슷하다. 우리는 美國과 달리 前近代的 思考, 주술적 그리고 迷信的 思考가 그대로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心理學者들이 心理學을 사회에 활발하게 보급하지 않는다면 美國이 1925 ~ 1950년 사이에 거둔 成果를 앞으로 거두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心理學을 社會에 認識시키는 것은 國民의 迷信을 타파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대학의 教養心理學을 열심히 가르치는 반면 中高等學校 그리고 다른 社會集團이 心理學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研究는 앞으로 그 調查內容을 더 확충하고 心理學의 全 領域을 포괄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되, 또한 全國 大學生을 代表하는 集團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5년 내

지 10년 간격으로 再調査를 하여 그 變化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研究費가 所要될 것이다. 이번 研究는 외부의 재정적 도움이 없이 筆者의 순수한 研究意欲만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研究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참 고 문 헌

- 李勳求, 민병모, 韓國人の 科學意識에 관한 研究. 과학기술처, 1980.
- Jahoda, G. Supernatural beliefs and Changing Cognitive Structures among Ghana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70, 1, 115-130.
- Levitt, E. E. Superstitions : Twenty-five years ago and today.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52, 65, 443-449.